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Table with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Rows list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column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Rows list various EBS Plu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column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2일(음 12월 3일 戊戌). Rows contain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완벽한 연기 위해 열정 쏟아부었죠”

‘오만과 편견’ 촬영 마친 목포 출신 최진혁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수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청춘드라마 주인공을 두고 전국 각지 젊은이들이 경쟁하는 KBS 2TV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에 도전했을 때 그의 나이는 만으로 20살이었다. 그는 당시 5천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우승했다.

배우 최진혁(30)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화려해 보여서 욕심을 냈지만 사실 멋모르고 살았던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남들보다 주목받는 출발을 했음에도 배우의 길은 생각보다 신중치 않았다.

최진혁은 데뷔작인 KBS 2TV ‘일단 뛰어’(2006)를 비롯해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별 화제를 모으지 못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연기자로서 탄탄한 길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군대 문제도 마음에 걸렸다.

그러다 받아들인 대본이 2년 전 MBC TV에서 방영된 ‘구가의사’였다. 최진혁은 초반 2회 등장만으로도 큰 사랑을 받은 구월령 덕분에 극 중반부터 다시 등장했다. 이후 tvN ‘응급남녀’, MBC TV ‘삼척자들’, ‘운명처럼 널 사랑해’를 무리 없이 마무리한 최진혁은 지난 13일 종영한 MBC TV ‘오만과 편견’을 통해 극을 흔차서도 이끌어갈 수 있는 배우로서 인정 받았다.

최진혁은 “원래는 ‘응급남녀’를 끝낸 다음 쉬려고 했었다”고 밝혔다.

“입대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기에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연기하면 계속 관리를 해야 하니 술을 마신다거나 흥청망청 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운동하기 싫고 피부과도 가기 귀찮을 때도 있고요.”

그는 고민 끝에 ‘오만과 편견’을 선택했지만 내용이 워낙 난해한 탓에 또 속앓이를 해야 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내용이 갑자기 건너뛰는 부분이 많아서 연기가 잘 풀어야 했어요. 구동치가 영리한 수석검사라는 역도 부담이었죠. 검사가 이렇게 어려운 캐릭터인 줄 몰랐어요.”

최진혁은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고 작품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까지 대본을 열심히 공부한 건 처음이었어요. 한 장면을 가지고 3~4시간씩 분석하고 파악한 적도 많아요. ‘누가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 식으로 공책에 써가면서 공부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저 스스로 놀랐죠. ‘내가 정말 이 작품을 잘하고 싶어하는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최진혁은 그렇게 공을 들인 만큼 구동치 역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배우들은 애를 먹었다지만 ‘오만과 편견’은 요즘 드라마마다



않게 분석하는 재미가 큰 작품이었다. 그만큼 성급히 마무리된 결말은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진혁은 “구동치가 살인 혐의 기소 때문에 검사를 더는 할 수 없기에 변호사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사실 그때 ‘죽대본’ 상황에서 촬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는 제기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백진희(24)가 분한 한영무와 구동치의 은근한 로맨스였다. ‘열무 커피’의 10조 키스 장면도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최진혁은 그 이야기에 박장대소하면서 “그 이전 키스 장면이 무미건조해서 두번째는 제 스타일대로 키스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설명했다.

최진혁은 언론 인터뷰와 팬미팅, 화보 촬영으로 이미 다음달 중순까지 가득 찬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면서 행복한 투정을 부렸다. 그는 오는 3월 입대할 예정이다.

“오만과 편견”을 하면서 연기를 못 하는 건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배우는 연기를 잘 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정민, 김래원 선배처럼 어떤 사람이 나오면 보러 가고 싶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흥행 부담 떨치니 촬영 즐거워졌죠”

tvN ‘하트 투 하트’ 차홍도 역 최강희



가 너무 높았고 결과와 간극이 클수록 나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달리는 가슴” 이후 이윤정 PD와 다시 만난 최강희는 “이 완벽한 촬영장에서 결국 (그동안 느낀 문제는) 제 안(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작품을 하면서 남들의 시선을 지우고 나만의 기쁨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윤정 PD와 다시 만나니 꼭 첫사랑을 다시 만난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는 포장된 예쁜 기억만 있었다면 이제는 지나온 시간까지 물어나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지금까지 4회가 방송된 가운데 차홍도는 ‘주목받아야 사는’ 정신과 의사 고이석(천정명 분)과 윗머리 점자 상자를 극복하게 된다.

최강희는 “각자가 가진 아픔의 지점이 만나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이 좋다”면서 “홍도에게 이석이 약이 되고 이석에게 홍도가 약이 되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드라마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의 눈길을 끈 중 하나가 백발 할머니로 등장하는 ‘동안미녀’ 최강희의 모습이었다. 극 중 차홍도는 세상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 할머니인 ‘흑석동 오여사’로 변장해 외출한다.

최강희는 “할머니 분장이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할머니 연기를 할 생각을 하니 정말 많이 긴장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제가 할머니와 함께 살아본 적도 없고 원래 할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마음(애정)이 큰 사람도 아니거든요. 성우를 소개받기도 하고 중년 연기자들로부터 조언도 많이 받았는데 그럴수록 오여사와 멀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막막한 최강희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가 능숙한 연극배우였다.

최강희는 “할머니의 귀여움과 괴팍함을 동시에 가진 배우여서 ‘오 여사는 딱 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잡았다”면서 “그분을 흉내 내면서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품 흥행에 대한 부담은 이미 내려놓았다는 최강희는 “현장의 재미와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계속 고민하고, 즐기고 있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제 마음에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최강희(38)는 부쩍 생기가 도는 얼굴이었다.

작년말 tvN 금드라마 ‘하트투하트’ 제작발표회장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최강희는 연기 자체가 스트레스였기에 한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최강희가 ‘하트투하트’에서 맡은 역 역시 심각한 안면홍조증으로 세상으로부터 멀리 도망친 차홍도다. 하지만 최강희는 이번 작품을 촬영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꽤 치유한 모습이었다.

“제가 예전에는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뭔가 크게 기대했다가 잘 안 되면 환경 털을 많이 했거든요. 저 자신에 대한 기대치

42년생 속 시원하게 털어버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54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66년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78년생 번거로움이 상당할 것 이니라. 행운의 숫자 : 47, 55

43년생 드러내지 않은 것이 변수로 작용하리라. 55년생 급할수록 후회하는 것이 복잡함을 피하는 길이다. 67년생 기존의 발상에서 벗어나야 집합을 볼 수 있다. 79년생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 본다면 오해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8, 90

44년생 비결은 따로 있느니라. 56년생 사실 이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68년생 불편하다면 오래도록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80년생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운이 따를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6, 92

45년생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57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규모와 부가적 이익이 달라지겠다. 69년생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81년생 과욕은 발전의 저해 요인이다. 행운의 숫자 : 32, 67

46년생 기회만 제대로 포착한다면 아주 특별한 행운이 따르리라. 58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할 소지가 많다. 70년생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82년생 망설이지 말고 행해야만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01

47년생 지나치다면 가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59년생 속 터는 일이 생기겠지만 일시적이다. 71년생 큰 힘이 되리라. 83년생 멀리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서서히 비추고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함이 좋다. 행운의 숫자 : 14, 8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